

#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중심으로

##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 Focusing on Using Youths for Drop in Center

김은영\*, 서보람\*\*

승실대학교 대학원\*, 평택복지재단\*\*

Eun-yeong Kim(uridul2430@hanmail.net)\*, Borahm Suh(vashti1@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가 실무자 지지보다 자립준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진로태도성숙은 자립준비의 하위변인 모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곧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수준은 일반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출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의 역량강화, 자립지원을 위한 일시청소년쉼터 역할 정립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가출청소년 | 일시청소년쉼터 | 자립준비 | 사회적 지지 | 진로태도성숙 |

### Abstract

This study analysis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maturity on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of run away youths using drop in center. This result peer support had more influence on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than in supporting the working class and career maturity had a huge impact on all the low-variables of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Career maturity level for run away youths paly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just like general youths. On the base this study propose supporting system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worker empowerment, drop in center's role establish for independent living.

■ keyword : | Run Away Youths | Drop in Center | Readiness for Independent Living | Social Support | Career Attitude Maturity |

##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떠나 가정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sup>1</sup> 규모는 정부 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상이한 차이는 있으나,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12년에 조사된 가출 경험율을 이용하여 약 45만 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쉼터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19

<sup>1</sup>'가출청소년'은 장기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한 국제적 동향은 청소년 가출의 비범죄화(非犯罪化)를 기반으로 차별과 낙인 방지, 인권 보호,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둔 포괄적인 자립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가출원인의 '다층성(multitude)'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1].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2], 이용인원은 2014년 24,079명으로 2011년 11,657명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컴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은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상담이나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나 청소년의 가출이 저연령화 되고 장기화되면서 컴퓨터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3].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취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립과 독립할 수 있는 진로와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이 사회에서 능력발휘의 기회를 갖게 하고 인간관계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이 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4].

자립이란 스스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지만, 가출청소년의 경우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문제 중 주거가 불분명하며, 낮은 학력과 심리, 정서적 불안으로 원만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5]. 2016년 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편입이 되면서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되었으나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의 혜택만큼 자립에 대한 실제적 지원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기간별로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시청소년쉼터는 아웃리치나 긴급구호의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단기쉼터는 가정복귀 및 사회복귀, 그리고 중장기쉼터는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6].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기나 중장기쉼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4-5년 전부터 일시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청소년쉼터 이용자의 40% 이상이 20세 이상 24세 이하의 후기청소년이며?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후기청소년의 상당수는 단기·중장기청소년쉼

터를 이용하기 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청소년쉼터를 방문해 도움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가출상황이 곧 자립이라는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출청소년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므로, 이들의 자립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쉼터 비이용 청소년의 자립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 학교, 또래와 같은 환경 요인과 함께, 개인이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진로태도성숙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8]. 그러나 가출청소년은 자립을 하는데 있어 부모,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주변에 있는 또래 및 쉼터 실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은 가족보다는 또래집단을 통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9], 쉼터청소년의 회복과 적응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실무자의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쉼터에서 제공하는 실무자의 지지, 프로그램, 서비스들은 가출청소년의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도 완화시켜준다[11]. 곧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자립에 있어 쉼터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수행하는데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가출청소년 자립정책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자립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대는 만 9세~24세이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의 서비스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을 따른다. 청소년쉼터 행정시스템의 2015~2018년 이용청소년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후기청소년 비중이 4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7].

## II. 이론적 배경

### 1. 가출청소년과 자립

청소년은 성인기로의 진입을 위해 자립을 준비하고 계획하여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올바른 진로선택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12]. 그러나 청소년이 가출을 할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고, 가출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학업중단을 발생시키고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13].

오늘날 자립의 의미는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14]. Maluccion[15]는 자립이 개인 차원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생존해 갈 수 있는 사회, 심리,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이 자립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자립은 ‘자신에게 편안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관계를 맺으며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16]. 이것은 곧 “개별적 독립이라는 의미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와 지역사회 자원을 잘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경제적 독립 상태”를 뜻한다[17]. 김정연 등[18]은 시설청소년 자립척도를 개발하면서 4가지 차원의 자립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출청소년이 궁극적으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 생활, 관계, 정서적 차원에서의 자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자립의 개념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립을 이해해야 한다[19].

가출청소년의 경우 자립이란 시설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과업을 순차적으로 성취하면서 시설 지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삶을 준비하고 자신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심리적 자립과 한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들과 사회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자립까지도 포함한다[20]. 즉 자립은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분절시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자립체계 간 상호 역동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21].

청소년 자립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육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쉼터청소년의 자립 실태에 관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청소년 가출의 장기화, 만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가정복귀가 어려운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들의 자립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 2.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과 자립의 관계

청소년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인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진로를 결정하며 자립을 준비해 나간다. 곧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요인이 직업 선택과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2]. 또한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진로태도성숙을 발전해나간다. 진로태도성숙은 한 순간에 갑자기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3]. 곧 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심리 적응을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24]. 진로태도성숙이란 발달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정도라는 관점과 발달을 연속인 개념으로 보고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거나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타협하여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준비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25].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도가 자립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양육시설 등에 입소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양육시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정경미[12]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수록

자립 준비도가 또한 높아졌다. 소년원 내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나영, 배임호[2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자립의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지지, 가족 지지는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출청소년은 가족, 학교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 처해 있으며, 이들을 지지하는 체계는 컴퓨터의 실무자와 또래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태도성숙과 관련해서,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자립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3. 가출청소년 자립에 대한 선행 연구

컴퓨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컴퓨터이용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동안 위기 청소년의 자립 연구는 주로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과 그룹홈 이용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12][14][27-33]. 이들 연구에서는 위기 청소년의 자립준비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요인, 컴퓨터환경, 컴퓨터종사자와의 관계, 시설지원, 또래 집단의 관계, 지역사회 지지, 가출청소년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과 정부가 제공하는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체계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12][34-36].

노혁[37]은 빈곤청소년에의 자립에 “경제적 열등성을 극복한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인 의존성을 벗어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남욱[38]도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들과 사회적 접촉까지 유지하는 사회적 자립까지도 자립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학자들의 자립에 대한 정의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자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인 양육시설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가 최근에는 취약아동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컴퓨터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그

대상이 18세 미만인 반면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시설로 9세 이상 24세 미만이 그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실제 지원되는 정책 내용도 달라서 지원이 열악한 쉼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39]. 특히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강원도, 충북지역에 위치한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229부를 배포했으며, 이중 19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176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설문기간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였다.

### 2. 측정도구

#### 2.1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할 척도는 실무자 지지와 친구의 지지 척도이다.

실무자 지지 척도는 정문진[39]이 사용한 시설 종사자와의 유대 및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지지 척도는 그레고리 외[40]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김소임[41]이 번안한 문항 중 친구 지지에 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실무자 지지	5	.940
친구 지지	6	.955

#### 2.2 진로태도성숙

이기학[22]이 청소년이 가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태도 및 성숙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 척도

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이기학[23]은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가지 차원(총 47문항)으로 진로태도성숙도를 구성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결정성(9문항), 준비성(9문항)의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진로태도성숙도를 측정하였다.

표 2. 진로태도성숙 척도의 영역별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결정성	9	.844
준비성	9	.880

### 2.3 자립준비

본 연구에서는 조규필[42]이 개발한 자립준비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으로 구분된 리커트 척도로 자립의지, 직업진로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호, 학업관리를 제외한 5개 영역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하위영역 중 직업진로역량은 직업가치관, 직업조사, 직업선택, 직장적응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관리는 소비관리, 돈관리, 신용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생활은 주거관리, 음식준비, 주방 및 안전관리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보호는 성보호, 건강관리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문항수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3. 자립준비 척도의 영역별 문항수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자립의지	4	.840
직업진로역량	12	.855
경제적 관리	9	.766
주거생활 관리	13	.854
사회적 기술	6	.818
자기보호	6	.761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가출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의 하위척도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의 하위척도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넷째,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가출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가출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분포로는 남자가 112명(63.6%), 여자가 64명(36.4%)이었다. 연령은 17~19세가 79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연령인 14~16세도 29명(1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족형태는 양친부모와 함께 생활한 경우가 54명(31.2%)으로 가장 많았으나 양친부모 이외 가족 형태가 119명(68.8%)로 가족체제 수준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상태는 "하"가 72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5명(20.0%)이었다.

학교상태는 고등학교 졸업이 52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중퇴 42명(32.8%), 중학교 유예 6명(4.7%)으로 5명 중 2명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가출시기는 중학생 시기가 92명(5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시기도 36명(22.9%)이었다. 가출기간은 1개월 미만인 58명(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 장기가출도 47명(31.5%)로 상당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4. 가출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N=176(문항별 결측치로 총 수 차이 존재)

구분	내용	명(%)
성별	남	112(63.6)
	여	64(36.4)
연령	14~16세	29(14.3)
	17~19세	79(45.4)
	20세 이상	72(41.4)
가족형태	양친부모	54(31.2)
	한부모 가정	39(22.5)
	재혼가정	14(8.2)
	조손가족	6(3.4)
	본인 혼자	22(12.7)
	기타	38(22.0)
경제상태	상	10(5.7)
	중	68(38.9)
	하	72(35.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5(20.0)
학교상태	초등학교 유예	1(0.8)
	초등학교 졸업	7(5.5)
	중학교 유예	6(4.7)
	중학교 졸업	20(15.6)
	고등학교 중퇴	42(32.8)
	고등학교 졸업	52(40.6)
첫가출시기	초등학교 3학년 이하	4(2.3)
	초등학교 4~6학년	32(18.6)
	중학생 시기	92(53.5)
	고등학생 시기	38(22.1)
	기타	6(3.4)
가출기간	1개월 미만	58(38.9)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7(18.1)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7(1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9(6.0)
	1년 이상 3년 미만	32(21.5)
	3년 이상	6(4.0)

2.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 하위영역 별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의 각 하위영역 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실무자 지지와 친구 지지는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의 각 하위척도 모두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실무자 지지는 진로태도성숙 하위 변인과 정적 관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립준비 하위변인 중 자립의지와는  $p<.05$  수준에서, 직업진로역량, 주거생활 관리, 사회적 기술에서  $p<.01$  수준에서, 경제적 관리, 자기보호와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친구 지지는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 하위 변인 모두와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자립

준비 하위변인 중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는  $p<.001$  수준에서, 직업진로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생활 관리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 중 결정성, 준비성 모두 자립준비 하위 변인과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결정성은 경제적 관리와  $p<.05$  수준에서, 자립의지, 사회적 기술과는  $p<.01$  수준에서, 직업진로역량, 주거생활 관리, 자기보호와  $p<.001$  수준으로 유의성이 나타났다. 준비성은 자립준비 하위변인 모두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 하위영역 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 성숙		자립준비						
		x1	x2	x3	x4	y1	y2	y3	y5	y5	y6	
사회적 지지	x1	1										
	x2	.357***	1									
진로태도 성숙	x3	.297***	.123	1								
	x4	.364***	.390***	.349***	1							
자립준비	y1	.153*	.332***	.253**	.284***	1						
	y2	.217**	.245**	.525***	.506***	.408***	1					
	y3	.281***	.213**	.172*	.338***	.410***	.494***	1				
	y4	.198**	.218**	.267***	.324***	.535**	.559***	.642***	1			
	y5	.217**	.500***	.211**	.319***	.536***	.415***	.568***	.569***	1		
	y6	.247***	.502***	.286***	.388***	.405***	.497***	.536***	.542***	.656***	1	
												1

x1: 실무자지지, x2: 친구지지, x3: 결정성, x4: 준비성,  
 y1: 자립의지, y2: 직업진로역량, y3: 경제적 관리,  
 y4: 주거생활 관리, y5: 사회적 기술, y6: 자기보호  
 \* $p<.05$ , \*\* $p<.01$ , \*\*\* $p<.001$

3.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 수준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인 교사지지는 평균 3.78점(SD=1.11), 친구 지지는 3.79점(SD=1.11)으로 평균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태도성숙은 준비성이 3.38점(SD=.84)으로 결정성(M=3.1, SD=.91)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다. 자립준비에서는 경제적 관리가 3.74점(SD=.69)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

으며, 직업진로역량(M=3.30, SD=.80)와 자립의지(M=3.38, SD=.96)는 평균 3.4점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6.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 자립준비 평균 점수

변인	하위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SD
사회적 지지	실무자지지	173	1.00	5.00	3.78	1.11
	친구지지	174	1.00	5.00	3.79	1.11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72	1.00	5.00	3.10	.91
	준비성	172	1.00	5.00	3.38	.84
자립준비	자립의지	176	1.00	5.00	3.38	.96
	직업진로역량	173	1.33	5.00	3.30	.80
	경제적 관리	173	1.44	5.00	3.74	.69
	주거생활관리	173	1.77	5.00	3.49	.71
	사회적기술	172	1.67	5.00	3.72	.82
	자기보호	175	1.50	5.00	3.64	.83

#### 4.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실무자 지지와 친구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10.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회귀모형 또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49, p<.001).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실무자 지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친구 지지는 정적 관계를 가지며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beta$ =.268, p<.001).

사회적 지지는 직업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7.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3.939, p<.01), 친구 지지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131, p<.05).

경제관리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9.4% 정도로 나타났으며(F=8.668, p<.01), 친구 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실무자 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146, p<.01).

주거생활관리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6.1%로 나타났지만(F=5.410, p<.01), 실무자 지지와 친구 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력이

25.1%로 높게 나타났다(F=27.777, p<.01). 실무자 지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았으며, 친구 지지는 p<.001 수준에서 정적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376).

자기보호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25.4%로 높게 나타났으며(F=28.553, p<.001). 친구 지지만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 =.357, p<.001).

표 7.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beta$	t	설명력
자립의지	상수	2,235	.300		7,451***	F=.949*** R=.325 R <sup>2</sup> =.105 수정된 R <sup>2</sup> =.095
	실무자 지지	.037	.067	.043	.554	
	친구지지	.268	.068	.307	3,939***	
직업진로역량	상수	2,395	.255		9,391***	F=6,758** R=.274 R <sup>2</sup> =.075 수정된 R <sup>2</sup> =.064
	실무자 지지	.110	.058	.152	1,901	
	친구지지	.131	.058	.180	2,247*	
경제관리	상수	2,868	.218		13,154***	F=8,668*** R=.307 R <sup>2</sup> =.094 수정된 R <sup>2</sup> =.083
	실무자 지지	.146	.049	.235	2,992**	
	친구지지	.082	.049	.130	1,658	
주거생활관리	상수	2,763**	.231		11,972***	F=5,410** R=.247 R <sup>2</sup> =.061 수정된 R <sup>2</sup> =.050
	실무자 지지	.089	.052	.139	1,726	
	친구지지	.105	.053	.160	1,978	
사회기술	상수	2,205	2,238		9,251***	F=27,777** R=.501 R <sup>2</sup> =.251 수정된 R <sup>2</sup> =.242
	실무자 지지	.023	.054	.030	.418	
	친구지지	.376	.056	.488	7,716***	
자기보호	상수	2,065	.239		8,642***	F=28,553*** R=.504 R <sup>2</sup> =.254 수정된 R <sup>2</sup> =.245
	실무자 지지	.061	.054	.081	1,137	
	친구지지	.357	.054	.469	6,592***	

\*p<.05, \*\*p<.01, \*\*\*p<.001

#### 5. 진로태도성숙이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의 하위변인인 결정성, 준비성이 자립준비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10.4%의 설명력을 가지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F=9.713, p<.001). 결정성( $\beta=.181$ , p<.05)과 준비성( $\beta=.250$ , p<.01) 모두 자립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진로태도성숙은 직업진로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39.4%였다(F=53.589, p<.001). 결정성은 직업진로영양에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r=.347), 준비성 또한 p<.001 수준에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r=.343)

표 8. 진로태도성숙이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	SE	$\beta$	t	설명력
자립 의지	상수	1,963	.326		6,016 ***	F=9,713*** R=.323 R <sup>2</sup> =.104 수정된 R <sup>2</sup> =.093
	결정성	.181	.082	.172	2,220*	
	준비성	.250	.089	.220	2,812 **	
직업 진로 역량	상수	1,048	.224		4,682 ***	F=53,587*** R=.628 R <sup>2</sup> =.394 수정된 R <sup>2</sup> =.386
	결정성	.347	.056	.398	6,159 ***	
	준비성	.343	.061	.365	5,650 ***	
경제 관리	상수	2,718	.229		11,894 ***	F=11,094*** R=.344 R <sup>2</sup> =.119 수정된 R <sup>2</sup> =.108
	결정성	.056	.058	.076	.976	
	준비성	.248	.062	.310	3,977 ***	
주거 생활 관리	상수	2,327	.237		9,800 ***	F=12,342*** R=.361 R <sup>2</sup> =.130 수정된 R <sup>2</sup> =.120
	결정성	.137	.061	.176	2,258 *	
	준비성	.216	.065	.259	3,327 **	
사회 기술	상수	2,469	.276		8,952 ***	F=10,815*** R=.341 R <sup>2</sup> =.117 수정된 R <sup>2</sup> =.106
	결정성	.117	.070	.131	1,668	
	준비성	.260	.075	.272	3,466 **	
자기 보호	상수	2,048	.273		7,506 ***	F=17,691*** R=.419 R <sup>2</sup> =.176 수정된 R <sup>2</sup> =.166
	결정성	.162	.069	.177	2,356 *	
	준비성	.319	.074	.323	4,299 ***	

\*p<.05, \*\*p<.01, \*\*\*p<.001

자립준비 하위변인인 경제관리에 대해 진로태도성숙은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11.9%였다(F=11.094, p<.001). 준비성은 경제관리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준비성은 경제관리에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다( $\beta=.248$ , p<.001).

진로태도성숙은 주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13%였다(F=12.342, p<.001). 결정성은 주거생활관리에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으며(.137, 05), 준비성은  $\beta$ 값이 .216(p<.01)으로 결정성보다 정적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의 하위변인인 사회기술에 대해서 진로태도성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11.7%였다(F=10.815, p<.001). 결정성( $\beta=.117$ )은 사회기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준비성은  $\beta$ 값이 .260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보호는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설명력은 17.6%였다(F=17.691, p<.001). 결정성은 자기보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eta=.162$ , p<.05). 준비성은  $\beta$ 값이 .319(p<.001)으로 결정성보다 정적 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가출청소년의 약 70%는 해체가정이었으며, 약 절반 정도는 학업중단 상태였다.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 또한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 지지 중 친구 지지는 자립준비에 있어 자립의지, 직업진로역량, 사회기술, 자기보호의 하위 변인에 정적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다. 실무자 지지의 경우 경제관리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진로태도성숙은 사회적 지지보다 자립준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 변인 중 결정성은 자립의지, 직업진로



역량, 주거생활관리, 자기보호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하게 미치고 있었으며, 준비성은 자립의지, 직업진로역량, 경제관리, 주거생활관리, 사회기술, 자기보호의 모든 하위영역에 정적인 유의한 관계를 미치고 있었다. 곧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일반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립을 준비하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청소년쉼터 이용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해 일시청소년쉼터 내 자립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으로 일시청소년쉼터는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운영되며, 가출청소년에게 음식, 피복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정서지원, 귀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시청소년쉼터에서 담당하는 가출청소년의 수가 상당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제공하기 힘들다. 또한 실무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립상담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중 상당수는 가출생활이 장기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자립과 관련된 상담, 직업훈련 기관 안내, 안전한 취업처 연계, 주거 및 생활 지원 등의 연계가 지원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시청소년쉼터의 자립지원 모형에 대한 메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팀을 구성해 일시쉼터에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의 자립 관련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가출청소년이 자립준비를 하는데 있어 친구 지지가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쉼터 내 실무자 지지는 친구 지지에 비해 영향력이 낮았다. 실무자 지지는 자립준비 중 경제관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는 긴급하고 절체된 상황에서 가출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가이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 교육

이 필요하며, 가출청소년에게 자립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자립의지가 있는 이용청소년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안내하고 개입하는 사례관리형식의 서비스 역량이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이들의 자립준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곧 진로태도성숙은 일반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가출청소년은 자립과 관련해 스스로 해내야 하는 압박감을 받으며, 자립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고 결정하는 진로태도성숙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은 이들의 자립에 있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시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에게 자립준비 프로그램, 주거, 직업훈련, 직업연계 등을 제공한다면 진로태도성숙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자립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자립관련 연계 기관을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교육이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실제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기관, 자립기술 프로그램 제공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시청소년쉼터는 실무자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자립육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계 기관들은 일시청소년쉼터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출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일시청소년쉼터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일시청소년쉼터는 2007년 10개소에서 2018년 30개로 다른 유형의 쉼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확충이 있었다[6]. 이러한 확충은 24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과 아웃리치를 통해 가출청소년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7일간 이용할 수 있어 가출청소년이 일시청소년쉼터를 떠돌아다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일어나고 있다. 가출청소년이 안정화되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시, 단기청소년쉼터로 연계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시청소년 컴퓨터 이용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청소년 컴퓨터는 컴퓨터에 입소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준비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타 일시청소년컴퓨터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컴퓨터에 입소에 의식주 지원을 원하는 가출청소년들은 단기, 중장기청소년컴퓨터로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거시적으로 청소년컴퓨터 유형화를 새롭게 논의해 이용자의 변화에 대응하는 컴퓨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지연, 정소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2]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 사업안내*, 2016.  
 [3] 김은녕, *컴퓨터 퇴소청소년의 자립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4] 정진선, *가출청소년의 진로 의사 결정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 김향초,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개입방법*, 나눔의 집, 2001.  
 [6]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사업안내*, 2018.  
 [7] <http://shelternet.or.kr>, 한국청소년컴퓨터협의회 행정시스템  
 [8] 성동제,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9] 김현주, *우리나라 청소년컴퓨터 운영실태와 발전방향 연구*,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0] 최은영, 유서구, “가출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복지연구*, Vol.14, No.1, pp.311-332, 2012.  
 [11] 변상해, 정의정, 오수생, 신종수, “미술 활동이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글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4, pp.217-227, 2009.  
 [12] 정경미, “시설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진로성숙 및 자립준비도의 관계,” *상담평가 연구*, Vol.2, No.1, pp.33-50, 2009.  
 [13] 이상주, 전미숙, “가출청소년 문제현황과 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4, pp.75-92, 2015.  
 [14] 조기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5] A. Maluccio, R. Krieger, and B. A. Pine, Assessing skills for Interdependent living. In A. N. Maluio, R. Kreiger, and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 Washington DC :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pp.77-89, 1990.  
 [16] 전미숙, *컴퓨터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7] 신혜령,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Vol.13, No.4, pp.90-124, 2001.  
 [18]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시설심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2, pp.23-53, 2011.  
 [19] 김보기,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0] 김남욱,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1] 최일심, *여자 가출 청소년의 자립 과정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2] 김봉환,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3] 이기학, *고등학생의 진로태도 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직업가치, 내외통제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 1997.

[24] 김현중, *사회적 지지가 가출청소년의 자아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5] 김현옥,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26] 김나영, 배임호, “사회적 지지가 소년원 내 남아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Vol.49, No.2, pp.39-64, 2018.

[27] 김미연, *그룹홈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8] 조순실, *그룹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삶의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29]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서비스에 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Vol.22, No.3, pp.69-96, 2011.

[30] 보건복지부, *위기청소년자립지원방안 연구*, 2008.

[31] 이경상,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Vol.18, No.10, pp.341-362, 2011.

[32] 조규필, “취약청소년 자립비요인 탐색 시사,” *청소년복지연구*, Vol.13, No.2, pp.97-120, 2011.

[33] 김명성,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34] 박은선,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35] 오승환, “청소년가출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청소년복지연구*, Vol.12, No.4, pp.301-324, 2010.

[36] 오수생, 변상해, “가출위기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인연구,” *벤처창업연구*, Vol.7, No.2, pp.195-205, 2012.

[37] 노혁,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방향—생활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로,” *청소년학연구*, Vol.11, No.1, pp.94-117, 2004.

[38] 최순중, “가출청소년쉼터의 새로운 유형화를 위한 방안 연구,” *교정담론*, Vol.10, No.2, pp.273-295, 2016.

[39] 정문진, *가출청소년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0] G. D. Zimer, N. W. Dahlem, S. G. Zimet, and G. K. Farley,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30-41, 1988.

[41] 김소임, *낮병원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2] 조규필,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저 자 소 개

김 은 녕(Eun-yeong Kim)

정희원



- 2015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2017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1999년 2월 ~ 현재 : 성남시단기

청소년쉼터 소장

<관심분야> : 위기청소년, 청소년정책, 자립

서 보 람(Borahm Suh)

정희원



- 2008년 2월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8월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8년 6월 ~ 현재 : 평택복지재단 기획연구실장

<관심분야> : 위기청소년, 청소년 정책, 다문화